

# 5·18묘지 3년 뒤 포화 부지확장 등 대책 시급

### 794기 수용에 현 603명 안장 ... 유공자는 4,056명

#### '부지 확장' '기존 활용' 등 보훈처·관리소 대안 고심

국립 5·18 민주묘지의 안장능력이 3~4년 이내에 한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국가보훈처와 국립 5·18 민주묘지관리소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안으로는 ▲인접 부지 확장 ▲별도의 묘지 조성 ▲기존 부지 활용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기존 부지를 활용할 경우 분분 등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유골을 화장할 수밖에 없어 기존 매장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유족들과 논란이 예상된다.

국립 5·18 민주묘지관리소(이하 관리소)는 17일 "국립 5·18 민주묘지의 잔여 안장능력이 200여기(墓) 미만으로 줄어들어 따라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할지, 새로운 묘역을 조성할지 등 대안을 놓고 관계당국과 논의중"이라며 "이르면 연말 안에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소에 따르면 9천350㎡(2천820평) 규모로 모두 10개 묘역으로 구분된 국립 5·18 민주묘지의 수용 능력

■국립 5·18묘지 안장현황

구분	계	1묘역	2묘역	3묘역	4묘역	5묘역	6묘역	7묘역	8묘역	9묘역	10묘역
안장능력	794	100	100	99	97	88	88	50	50	56	66
안장기수	603	100	96	94	96	88	63	0	0	0	66

은 794기이며, 이날 현재 603명의 5·18 유공자 시신이 안장돼 있다. 잔여 안장능력은 191기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립묘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날 현재 민주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유공자는 4천 56명에 달한다.

관리소는 남은 191기도 오는 2012~2013년이면 안장능력이 한계에 달해 빈 자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1980년 당시 20~40대였던 유공자들이 한 세대가 지나면서 관계당국의 예상보다 이른 시일에 묘지가 포화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인근 부지를 매입해 확장하는 방안, 별도의 묘지를 조성하는 안과 더불어 장묘문화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기존 부지 안에 확장할 유골만 안장하는 방안 등을 놓고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부지 확대를 비롯한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중이나 사안이 워낙 민감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유공자와 유족 등 관련자들과 충분히 논의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족 측에서 과거(이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 뒤 의견을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봉분과 묘비 등을 갖춘 기존의 묘지와 동일하게, 형평에 맞게 해달라는 유족들의 의견을 전해들었으나,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관계자는 "국가보훈처에 기존의 안장 방식대로 이뤄져야 형평에 맞다는 의견을 이미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아름다운 가게 '책 주주 모집합니다'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 '아낌없이 주는 나무' 광주일보 13일자 1면)가 17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문을 열었다. 개점 행사에서 유치원 원생들이 장기자랑을 하고 있다. 아름다운 가게는 헌책방 운영을 위해 '책 주주 모집 캠페인'을 펼쳤으며 자원봉사에 참여할 '책방천사'도 모집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학교운영비 거둬도 된다”

### 법원 판결 ... 학부모들 반한 청구 소송 패소

의무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수업료 무상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민권 판사는 17일 광주 등 전국 중학생 학부모 112명이 국가와 광주·서울·경기·경북·전북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법상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및 운용은 학교운영위의

의무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이나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수업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학교운영지원비가 설사 수업료에 해당한다고 해도 원고들이 낸 돈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사용됐으므로 민법상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학교 측이 의무교육이 시

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2007년 소송을 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 수업료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지난 2002년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된 이후 학생들은 1인당 연간 10만~24만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내고 있으며, 교직원 인건비, 학교 시설의 설치, 유지·보수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 나원침 (7832) 김중두



### 순천시 대형 크레인 화재

17일 낮 12시40분께 순천시 연향동 팔마체육관 인근 도로를 운행하던 대형 크레인(50t)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6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크레인 운전사 박모(47)씨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 경찰에 옥설 '모욕죄' 3년새 4배

○현 정부 들어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기소된 사람이 크게 늘어 주목.

○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내 모욕죄 기소자는 2006년 913명, 2007년 1천911명, 2008년 3천568명으로 최근 3년새 4배 가량 늘어났으며, 올 들어 5월까지 1천705명이 기소될 만큼 가파른 증가세.

○국내 모욕죄 급증은 경찰관이 시민을 기소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경찰이 신체적인 폭행이 아닌 욕설을 들었을 경우에도 모욕죄를 적용함으로써 언어폭행에 대해 가차없는 처벌을 하고 있다는 분석.

○검찰 관계자는 "공권력에 대한 언어폭행이 심화됨에 따라 경찰이 '교육지력'으로 모욕죄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 같다"고 설명. /연합뉴스

## 계림동 절도범 잡고 보니 '大盜'

<대도>

### 5인조 전국 들며 202차례 10억 어치 금품 털어

지난 14일 경기도에서 검거(광주일보 15일자 6면)된 광주 가정집 역대 절도범은 전국을 돌며 10억원대의 금품을 훔친 '대도(大盜)'로 드러났다.

경기용인경찰청은 17일 광주 등 전국을 무대로 빈 아파트를 돌며 금품을 털 김모(36·경기도 일산시)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4일 오후 3시께 광주시 동구 계림

동 K아파트 김모(44)씨의 집에 들어가 안방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억5천여만원과 금반지 등 3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돌며 202차례에 걸쳐 10억원 어치의 금품을 털 협의다.

경찰은 4개월에 걸쳐 아파트 절도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이동통신기지국 13곳에서 50만건의 통화 내역을 분석해 중복통화

자인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CCTV에 찍힌 사진과 김씨가 동일인물로 확인돼 검거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5인조 범집단이 범행들은 경찰조사에서 일관되게 "우연히 들어갔더니, 현금 1억5천만원이 있었다. 사전 정보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광주 역대 절도사건에 가담했던 김모(40)씨 등 일당 2명을 쫓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경찰서장 7년 이상 못한다

### 경찰청, 훈령 개정

경찰청은 총경이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을 7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경급 인사 관련 훈령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훈령은 총경이 지역 치안의 책임자인 경찰서장이 될 수 있는 총기간을 7년으로 제한하는 '경찰서장 가담제한'을 도입했다.

또 일부 총경들이 특정 지역에 머무르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전국을 서

울시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중부(경기·인천·강원), 충청(충북·충남·대전), 전라(전북·전남·광주), 경북(대구·경북), 경남(부산·경남·울산)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인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에서 승진한 총경은 능력이 있어도 서울권에 쉽게 진입못해 경무관 승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 승진 총경의 부속기관 전임 기준이 총경 근무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키로 했다. /연합뉴스

### 초등생 공기총 살해 40대

### 살인혐의 구속·검찰 송치

광주북부경찰청은 17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다친 초등학생을 공기총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모(48)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일곡동 M마트 앞길에서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광주 모 초교 4년 J(10)군을 친 뒤 차에 태워 사고현장에서 20km 떨어진 담양군 남면 인근 저수지로 끌고 가 공기총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이종필기자 golee@

대한민국 No.1 경찰! 동부경찰학원

# 여름방학 대개강

7월 1일(수) 이론종합반 첫진도 개강 | 2개월(7.1~8.31) 진도완성

## EVENT

경찰 베스트셀러 교재 무료  
포기 접수시 [동부반] 교재(1만원) 무료제공

★ 100% 취업률 보장  
★ 100% 합격률 보장  
★ 100% 진도완성 보장  
★ 100% 만족도 보장

할 수 있다는 믿음! 동부경찰학원에서는 원심이 합니다. www.dongbu.ac.kr

경찰학원 1위 동부경찰학원 동부경찰시책부 234-1112

독하게 배워 한권으로 공수판다!

진건부

1. 진건부란? 진건부는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필수 교재로, 경찰관들이 진건부를 통해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을 높이고,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을 높이고,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을 높이고...

2. 진건부의 특징: 진건부는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필수 교재로, 경찰관들이 진건부를 통해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을 높이고,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을 높이고,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을 높이고...

3. 진건부의 효과: 진건부는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필수 교재로, 경찰관들이 진건부를 통해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을 높이고,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을 높이고,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을 높이고...

4. 진건부의 구매처: 진건부는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필수 교재로, 경찰관들이 진건부를 통해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을 높이고,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을 높이고,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을 높이고...